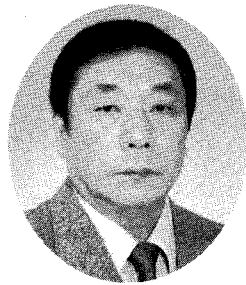


간염



이창홍

(고대구로병원 · 내과)

간염은 우리나라의 내과 영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으로, 누구나 주위에 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보았거나 본인 자신이 간염을 앓아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염의 일반적인 증상은 전신피로감, 식욕 감퇴, 그리고 소화불량 등 대부분 일상생활중에 한두번은 느껴본적이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다. 그러므로 황달과 같은 특징적인 증상이 없으면 자칫 간염의 가능성을 간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아무 증상없이 십여년간 만성간질환을 앓아오다가 말기 간경변증이나 간암이 발생한 후 처음 증상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받기도 한다. 따라서 평소 간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숙지한다면 좀더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간염은 그 임상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

로 분류하는데 대개 그 기준은 임상증상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간염이 완전히 회복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급성간염은 아주 드물게 전격성간염과 같이 치사율이 높은 질환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후유증없이 자연 치유되는 질환이다. 그러나 만성간염은 간염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경변증, 간암과 같은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기까지 한다.

또한 간염은 그 원인에 따라 독성간염과 바이러스성간염으로 대별된다. 독성간염은 간에 유해한 각종 약물등에 의해 초래되며 대부분은 급성간염으로 발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바이러스성간염이란 말 그대로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초래되는 질환으로 현재까지 A형, B형, C형, D형, 그리고 E형 등 다섯가지의



바이러스성간염이 밝혀져 있으며 그 원인에 따라서는 만성 간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간염의 원인에 따른 임상증상의 차이는 없으므로 그 원인규명은 병원에서의 혈청학적 검사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바이러스성간염에 국한하여 그 문제점들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들에 국한되어 발생한다.

1980년경까지는 우리나라도 후진국과 같이 대부분 10세이전의 소아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회복된 후 영구면역을 획득하였으므로 성인에서는 오히려 A형 간염환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위생시설이 발달되면서 유소아기에 A형 간



우리나라에서 만성 B형 간질환이 많은 이유는 바로 유소아기에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부모 또는 그밖의 가족들에게서 감염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략 우리나라 인구의 5~10%가 B형 간염바이러스의 만성보균자로 알려져있다. 만성 B형 간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현실점에서 우리나라의 B형 간염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B형 간염의 예방접종이 널리 권장되고 있으며 특히 신생아의 예방접종이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된다.



A형 간염은 A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해 초래되며 만성간염으로는 이행되지 않는 급성간염이다. 그 감염경로는 경구감염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등을 통하여 전파된다. 따라서 A형 간염의 발생은 그 지역의 보건위생 및 경제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구미지역, 일본 등의 선진국과 같이 위생시설이 고도로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미 A형 간염이 거의 퇴치되어, 그 발생이 후진국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

염바이러스의 감염을 받지않아 면역이 없는 상태로 있는 성인들이 늘어나면서 성인에서의 A형 간염 발생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B형 간염의 호발지역이며 실제 우리나라 간염의 대부분은 B형 간염이 원인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거의 대부분은 과거에 B형 간염을 앓고 회복되어 면역을 획득하였던지 또는 현재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간염은 B형 및 C형 간염이다. 이 두가지 간염이 우리나라의 각종 급·만성간염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며 간경변증, 그리고 원발성간암의 주원인이다. 따라서 간염과 유사한 임상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물론이고, 자주 접촉하는 가족이나 친지중에 이러한 간염환자가 있다면 아무증상이 없더라도 한번쯤 간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아야한다.



있던지 간에 B형 간염바이러스에 한번은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B형 간염은 A형과는 달리 급성으로만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만성간염,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만성 간질환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B형 간염바이러스가 성인에게 감염되면 만성화율이 5%내외에 불과하지만 유소아기, 특히 영아기에서 감염되면 만성화율이 80~90%로 알려져있다. 우리나라에서 만성 B형 간질환이 많은 이유는 바로 유소아기에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부모 또는 그 밖의 가족들에게서 감염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략 우리나라 인구의 5~10%가 B형 간염바이러스의 만성보균자로 알려져있다. 만성 B형 간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현 시

점에서 우리나라의 B형 간염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B형 간염의 예방접종이 널리 권장되고 있으며 특히 신생아의 예방접종이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된다.

C형과 E형 간염은 그 원인 바이러스가 최근 발견되었으며 과거에 A형도 B형도 아닌 비 A비B형 간염으로 불리우던 질환이다.

C형 간염은 과거 수혈후에 발생하는 간염의 주원인으로 B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만성간염,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성인에게 감염되면 그 만성화율이 50%이상으로 오히려 B형 간염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C형 간염검사법이 개발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보급되어 있어 가까운 병·의원에서 쉽게 검사가 가능하며 적십자 혈액원에서도 B형 간염과 함께 C형 간염검사도 공혈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수혈후성 C형 간염의 빈도는 격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C형 간염환자는 수혈등과 같은 명백한 전염경로가 없이 발생하는 즉 전파 경로미상의 특발성간염으로 알려져있어 그 예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C형 간염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급·만성 간질환의 원인으로 C형 간염이 B형 간염 다음으로 많은 원인임이 밝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C형 간염의 예방주사는 개발되어있지 않다.

E형 간염은 A형 간염과 같이 주로 후진국에서 호발하며 경구적 감염경로를 취한다. 역시 만성간염은 초래되지 않으며 급성간염으로 지



나가는 질환이나 임신부에 감염되면 그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그 빈도는 명확치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E형 간염이 존재함이 규명되고 있다. 아직까지 E형 간염검사법은 몇몇 연구기관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곧 일반 병·의원까지 보급되리라 예상된다.

D형 간염바이러스는 B형 간염바이러스의 도움없이 독립적으로 감염을 초래할 수 없는 일종의 불완전한 바이러스이므로 D형 간염 역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있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발생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의 유행률은 매우 높은 반면 D형 간염의 중복감염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의 D형 간염은 문제시되고있지 않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간염은 B형 및 C형 간염이다. 이 두가지 간염이 우리나라의 각종 급·만성 간염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며 간경변증, 그리고 원발성 간암의 주원인이다. 따라서 간염과 유사한 임상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물론이고, 자주 접촉하는 가족이나 친지중에 이러한 간염환자가 있다면 아무증상이 없더라도 한번쯤 간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한 치료또는 예방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